

제425회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5월13일(화)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1
o 위원장(김정호) 인사 2
2. 간사 선임의 건 2
o 간사(임미애·김형동) 인사 3

(13시3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원 중 최연장자로서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김정호 위원입니다. 제가 된 게 아쉽니다, 지금 대행으로.

지난 경북·경남·울산 등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산불로 10만 4000여 ha에 이르는 역대 최대 면적의 산림 피해 그리고 주택 등 시설 1만여 개소의 피해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안타깝게도 헬기조종사 산불진화대원 공무원 등 사망 서른한 분, 부상 백오십여섯 분, 총 백팔십일곱 분의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산불로 희생당하신 유가족께 삼가 조의를 표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뜻에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일동 착석)

1.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38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47조제1항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구두 추천으로 선임해 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관례에 따라 구두 추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자리에 앉아 계시는 김정호 위원님께서, 아무래도 산불특위의 핵심은, 김정호 위원님이 경남이시고 김형동 위원님 또 임미애 위원님이 경북이니까 삼각이 잘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균형 있게. 그래서 김정호 위원님을……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간사님까지 추천하시는 겁니까?

○이원택 위원 아니, 그렇게 세 분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송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형동 위원 제가 이의를 좀 달려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예,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먼발치에서 봤지만 아마 산불특위에 가장 적임으로 위원장님 역할을 하실 분이 김정호 위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아니, 이의가 아니시네요.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o 위원장(김정호) 인사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올해 영남권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 지원 그리고 복구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내고 대형산불 방지 및 대형산불로 인한 재난·안전 관리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한 분의 간사를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미애 위원님, 국민의힘에서는 김형동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각 교섭단체로부터 추천된 두 분을 우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임미애·김형동) 인사

(13시40분)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두 분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 자리를 이쪽으로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미애 위원 인사하고서 바꾸면 안 될까요?

○김형동 위원 이미 결정돼 버렸는데.

○위원장 김정호 결정돼 버렸어요?

○임미애 위원 간사로 선임된 임미애입니다.

어제도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났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특별법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 국회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라는 얘기였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근 60여 일이 다가오는데 그분들의 삶은 여전히 어찌면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힘이 들고 늘 불타 버린 시커먼 산을 매일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정신적으로도 매우 고통스럽다라는 말씀 하십니다.

저희 특위가 빠른 시간 내에 이재민들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역할을 해 나가는 데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형동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간사로 선임이 되었는데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참 국회에서 이러한 특위는 자주 없어야 하는 게 마땅한데 특위가 만들어진 그 경위와 앞으로 해야 할 일들까지 포함한다면 이왕 만들어진 특위 최대한 열심히 간사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하고, 고향이 우리 동네 근방이신데요 형편이 거의 비슷합니다. 주말 내내 임시주택이 들어온 쪽에 가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안도걸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허성무 위원님 특히 임미애 위원님까지 해서 민주당이든 우리 당이든 여야 산불특위가 각자 노력한 그리고 추경을 지지난주에 우리가

통과시켰습니다만, 안도걸 위원님께서도 많이 추경에서 힘을 써 주셔서 가지고 소기의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머무르지 않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10.4만ha라 그랬는데 서울이 6만이니까 거의 서울의 2배 정도가 지금 영남 산불의 피해인데 또 이래 보니까 처음에는 피해 지역이 아닌 줄 알았는데 불이 스쳐 지나간 지역은 여전히 침엽수림을 중심으로 해서 고사 상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 달 다음 달 되면,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우기가 겹치면 흔히 말하는 2차 피해 이런 것까지도 염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늦지 않게 시의적절하게 입법 제도뿐만 아니라 저희가 특위에서 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을 적절한 시기에 국민들을 위해서 그 이재민들을 위해서 제안하는 그런 특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모시고 임미애 간사님과 협조 잘해서 특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두 분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이 첫 회의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사는 오른쪽에서부터,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교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풍당풍당.

○안도걸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안도걸입니다.

저도 우리 피해 지역을 방문하고 그때 깜짝 놀랐었습니다. 피해 규모 그리고 피해 양상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일단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정말 감당키 어려운 그러한 대형 재해로 재난으로 이렇게 가 버렸다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낙에 또 피해가 컸기 때문에 우리 이재민들의 피해 복구 그리고 이분들의 재기 그리고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활성화, 지금 너무나도 큰 과제들을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런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시행착오도 있었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제에 부족한 부분들, 행정적인 체계 그리고 또 지원 체계, 응급복구 체계 그리고 또 재해·재난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시대의 여건 변화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많이 발견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재해·재난과 예방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이번에 다시 살펴보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특위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달희입니다.

저는 작년 3월 5일까지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를 하고 국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형산불 난 피해 지역의 가장 많은 지역이 경상북도라서 이 자리가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이렇게 마이크 잡는 자체가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고 짝해 옵니다.

그 현장에 불이 났을 때도 있었는데요. 그동안의 산불에 비해서 기후위기에 나타나는 특별한 산불을 저희들이 대해 보고, 행정부에 있을 때 국가와 정부가 있는 존재의 이유가 항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1순위라 했는데 그 노력이 진짜 무산될 정도로 이런 대형산불을 거친 지역 출신으로서 정말 이 특위에 임하는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굉장히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특히 선거가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양당 간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무안 여객기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지원 특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3만 5000불의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이든 자연재해든 재난이 있을 때는 정부가 있음을 국가가 있음을 국민들께 피부로 와닿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무안특위에서도 거의 한 100일 만에 법을 본회의 통과시키고 태어난 아가들, 부모 잃은 사람들 대학교 졸업까지 다 무상교육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 체계를 법적 체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기후위기에서 나타난 예단치 못한 이런 대형산불에도 우리 이재민들에게 그리고 사상자들에게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지원과 아울러서 선진국다운 그런 모습으로 재건의 모습도 함께 법적인 조치를 갖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절절히 와닿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 위원 저도 경북 산불을 한 3차례에 걸쳐서 현장을 가 봤던 당사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근본적 대책을 잘 마련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북 산불 이전에 사실 홍수 피해랄까 또는 폭염 피해랄까 24년 23년 22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지진, 산사태. 그럴 때마다 지적돼 왔던 것이 사실 재난·안전 기본법의 생계 구호 복구 수준에서의 지원 대책으로는 차년도 농사를 짓기 어렵다라는 어떤 결론들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없는 지적과 제도개선을 요청했지만 사실 정부와 기재부의 반대로 그 답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북·경남 산불의 피해자는 다 농민입니다. 대부분이 다 농민인데 이 농민들께서 주거 문제도 있고 또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차년도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번 특위가 넘어선다고 하면, 이 경북·경남 산불의 특별법으로 해서 여기만 구제하고 나머지는 또 본래대로 돌아가면 그건 사실 이견 말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 기본법, 농작물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등 관련 법들을 이번에 잘 정비해서 재난과 재해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 기반을 좀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허성무 위원님.

○허성무 위원 의결정족수 때문에 창원에서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정호 고맙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만큼 우리 산불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한 거고 대선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본인의 피해보다도 더 절박한 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늘 재난·재해가 있을 때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난·안전 기본법 이거 너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너무 삶과는 동떨어진 법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제대로 좀 개정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 어떤 재난·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일에 우리 특위가 좀 제대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특위 활동 열심히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총 열세 분인데 오늘 일곱 분 오셨고 여섯 분은 제각각 사정이 있어서, 미리 연락 주신 분도 계신데요 다음 회의 때 또 인사 올리기로 하고.

우리 특위 활동을 보좌할 전문위원 그리고 위원회 직원들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서서 같이 인사해 주십시오.

최용훈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박수)

박수는 나중에 모아서 치십시오.

그다음에 임재금 전문위원입니다. 김형동 위원님하고 친구라고요?

○김형동 위원 예, 환노위에서도 1년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든든하시겠습니다.

나아정 전문위원입니다. 나아정, 이름이 특별합니다.

다음에 김건식 행정실장입니다.

이외에도 입법조사관 주무관……

서시겠습니까?

여러 직원들이 우리 특위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직원들 함께 차렷, 절.

(인사)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선거기간이고 참석이 겨우 정원이 된 정도라서 더 이상 회의를,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에 관해서는 이걸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거 마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사무처 직원 여러분도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정호 김형동 안도걸 이달희 이원택 임미애 허성무

○청가 위원(3인)

박정현 서천호 임종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임재금

전문위원 나아정